

고령자의 근로생애

- 산업노동 진입과 임금일자리 은퇴를 중심으로 -

이혜정·장지연*

I. 문제 제기

이 글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직업력자료(2007년)에 나타난 고령자의 근로생애에서 처음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7년에 패널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15세 이후의 직업력을 캘린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현세대 고령자의 과거 근로생애를 회고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물론 근로생애에 대한 자료는 반복적인 추적조사를 통하여 종단면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기본조사연도인 2007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직업력만을 조사하는 것으로는 당면한 여러 가지 정책연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고령자의 기억에 의존한 회고적 조사가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정확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대 고령자의 근로생애 조사가 필요하였다. 나아가 회고적으로나마 과거 직업력을 파악해 두는 것은 향후 근로생애의 분석에서 ‘좌측절단’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의 근로생애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제기하게 되는 질문은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하고, 언제 어떻게 은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시작과 끝에 대한 질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세대 고령자들이 젊은 시절에 산업노동으로 진입해 온 과정과 임금일자리로부터 은퇴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이혜정=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np625@kdi.re.kr).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chang@kdi.re.kr).

II. 우리나라 고령자 근로생애의 기본 특징

현세대 고령자의 첫 일자리 경험은 평균 20.6세에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여성의 첫 일자리 시작연령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는 고연령대로 갈수록 젊은 나이에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상식에 부합하였다. 지금까지 가졌던 일자리의 수는 평균 3.3개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는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각각 평균 2.8개, 3.0개, 2.5개의 일자리가 발견되었고, 남성의 경우는 각각 평균 3.7개, 4.3개, 4.2개의 일자리가 조사되었다(표 2).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던 총 근로기간은 평균 30.5년 이었다(표 3). 이를 다시 성·연령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45~54세 여성은 16.6년으로 비교집단들 중에서 가장 짧은 근로기간을 보였고, 55~64세 여성은 22.3년, 65세 이상 여성은 29.8년이였다. 남성의 경우는 65세 이상 남성의 근로기간은 45.9년이였고, 55~64세는 36.5년, 45~65세는 27.2년의 총근로기간을 보이고 있다.

〈표 1〉 첫 일자리 시작연령

	연령집단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성	45~54세	1006	21.4	4.2	15	43
	55~64세	1142	19.8	4.4	15	55
	65세 이상	1763	18.7	4.6	15	42
여성	45~54세	1253	21.4	7.0	15	51
	55~64세	1225	21.5	8.9	15	63
	65세 이상	2203	21.2	10.1	15	74
전 체		8592	20.6	7.4	15	74

〈표 2〉 생애 일자리수

	연령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성	45~54세	1012	3.7	2.0	0	12
	55~64세	1145	4.3	2.2	0	19
	65세 이상	1765	4.2	2.2	0	17
여성	45~54세	1324	2.8	1.8	0	11
	55~64세	1310	3.0	2.0	0	13
	65세 이상	2470	2.5	2.0	0	16
전 체		9026	3.3	2.2	0	19

〈표 3〉 총근로기간

	연령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성	45~54세	1012	27.2	5.4	0	39
	55~64세	1144	36.5	6.3	0	49
	65세 이상	1760	45.9	9.5	0	79
여성	45~54세	1324	16.6	9.9	0	39
	55~64세	1310	22.3	14.1	0	49
	65세 이상	2465	29.8	20.2	0	82
전 체		9015	30.5	16.5	0	82

연령집단별로 15세 이후 생애기간 중에 어떤 활동이 주된 활동을 차지하여 왔는지를 조사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¹⁾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고령자의 생애활동기간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전 생애 중에서 약 50%는 유급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6%는 무급가족노동, 24.6%는 가사노동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5~54세 중년남성의 경우, 15세 이후 생애기간의 73.5%는 유급노동에 주로 종사한 기간이었으며, 14%는 교육을 받은 기간이었다. 한편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경우는 15세 이후 생애기간의 35.5%만을 유급노동으로 사용하였고, 40.6%를 가사노동에 주로 사용하였다. 무급가족노동에 사용한 기간도 1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보면, 남성의 경우는 유급노동에 종사한 기간이 72.7%로 중년세대와 비슷한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중년세대 여성에 비해 유급노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무급가족노동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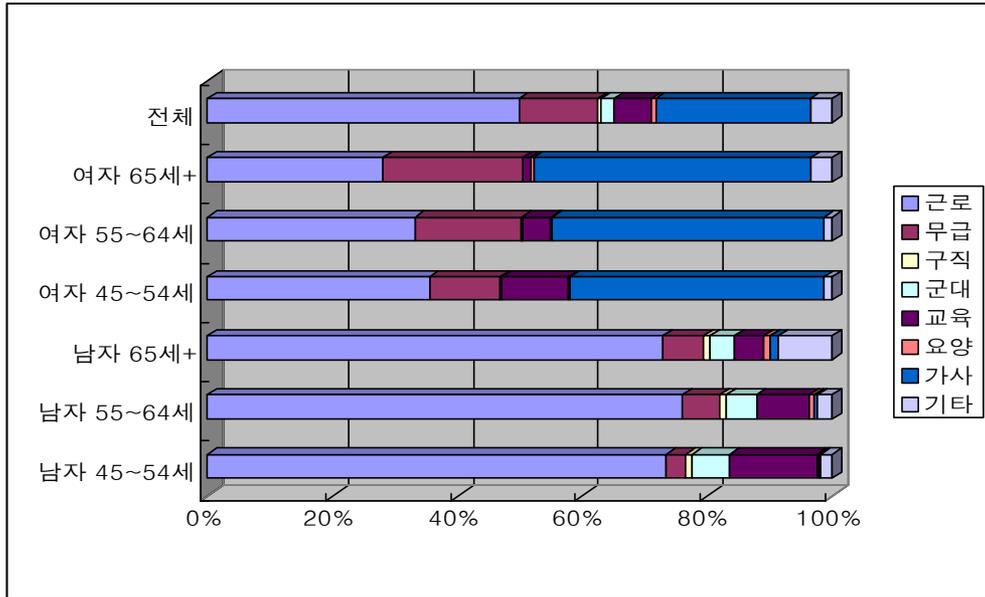
〈표 4〉 생애활동별 비중

(단위: %)

	남 성			여 성			전 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유급노동	73.5	76.1	72.7	35.5	33.2	28.0	49.8
무급노동	3.1	5.9	6.4	11.4	17.1	22.3	12.6
구직활동	1.0	1.1	1.1	0.3	0.1	0.0	0.5
군대	6.0	4.8	3.9	0.0	0.0	0.0	2.1
교육	14.0	8.3	4.7	10.6	4.5	1.2	6.1
장기요양	0.5	0.8	1.0	0.3	0.4	0.5	0.6
가사	0.2	0.5	1.2	40.6	43.4	44.4	24.7
기타	1.8	2.4	8.6	1.3	1.3	3.3	3.5

1) 각년도에 주로 한 일을 조사하였다. 장기간 한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나, 활동한 기간이 비슷하거나 동시에 두 가지를 한 경우, 우선순위는 유급노동에 두었다. 즉, 유급노동을 하면서 가사노동도 한 경우, 그 해는 ‘유급노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생애활동별 비중



III. 분석방법

1. 자료

본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자료」(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팀)의 2007년 직업력자료이다.²⁾

2. 모형: 경쟁적 위험률 회귀모형(Competing Risks Hazard Regression Model)

본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다. 사건사분석이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주로 어떤 사건(event)의 위험률(hazard rate; 또는 순간 전환율)이다. 위험률이란 어느 시점까지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또는 표본들) 중에서 그 시점에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순간적인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이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는 <http://klosa.kli.re.kr>와 노동리뷰 2008년 6월호 참조.

$$r_{jk}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_{jk}(t, t + \Delta t)}{\Delta t}$$

여기서 $P_{jk}(t, t + \Delta t)$ 는 t 시점에서 j 상태에 있다가 $t + \Delta t$ 시점에 k 상태로 변화하게 될 확률이다. 사건사분석의 기본적인 모델은 전이율이 시간의 흐름과 각 표본의 관찰된 특성들에 따라 설명되는 것으로 본다. 즉,

$$r(t | x_i(t)) = q(t) \cdot \exp(b_{1i}x_{1i}(t) + b_{2i}x_{2i}(t) + \dots)$$

$q(t)$ 는 시간의 흐름의 영향을 표시하는 부분이며, $x_i(t)$ 는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우리가 채용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은 고령자가 임금일자리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① 다른 임금일자리 ② 기타 여러 일자리) ③ 자영업 ④ 일 안함의 네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로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즉, 일반적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언제 일어나느냐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본 분석은 종착점(destination)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위의 네 가지 상태가 경합하는 ‘경쟁위험모형(competing-risk model)’을 분석한다.⁴⁾

둘째, 본 분석모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는 은퇴상태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b_{ixii}(t)$ 부분은 어떤 분포를 띠는지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Cox(1984)가 제안한 바에 따라 이 분포가 어떤 모양을 띠는지에 관계없이 설명변수의 회귀계수만을 추정한다(Cox regression model; partial parametric model).

셋째, 전직 또는 은퇴가 일어날 위험률은 개인의 다른 중요한 특징에 따라 모든 시간

3) 「고령화연구패널자료」의 직업력조사에서 ‘기타 여러 일자리’라는 범주는 행상이나 일용근로와 같은 단기일자리, 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칭한다.

4) cause-specific hazard rate 분석하는 경쟁위험모형은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event, transition, or failure 라고 지칭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모형의 계수추정치를 제공하는 통계패키지들은 흔히 관심이 되는 종류의 사건이 아닌 다른 여타 원인에 의한 사건발생은 그 시점에서 ‘censored’ 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최종 관찰시점까지 특정한 사건(예컨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지 않고 관찰이 종결된 경우(right censoring)는 이후에라도 다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인데 비하여, 다른 사건의 발생(예컨대 암으로 인한 사망)은 다시 관심원인(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므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Coviello & Boggess(2004)가 제안한 분석방식을 따라, 관심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상태공간’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구간에서 일정하게(proportional)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가정한다(proportional hazard model).

3. 주요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고령자의 근로상태 범주는 농업노동, 임금근로, 농업노동이 아닌 자영업, 행상이나 일시적 근로를 포함한 기타 일자리, 그리고 일하지 않는 상태로 구분하였고, 사용된 설명변수들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

변 수	변수값
응답자 연령(2007년 기준)	
임금일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한 연령	
성별	남자 여자
결혼 여부	
첫째자녀 여부	
학력	초졸 미만 초졸에서 중졸 고졸 이상
산업	농림어업·광업 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수도사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
직업	관리자·전문가·사무직·직업군인 서비스·판매근로자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생산·단순노무종사자
사업장 규모	100인 미만 300인 미만 500인 미만 500인 이상
월평균 임금소득	
주당평균 근무시간	
임금일자리 전에 일했던 기간	
임금일자리 전에 가졌던 일자리수	
지역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광역시

IV. 산업화에 따른 농업노동 이탈과정

현세대 고령자의 근로생애 분석에서 먼저 관찰한 주제는 이들의 농업노동 이탈과정이다. 「고령화연구패널자료」에 따르면 1,785명의 응답자가 농업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들 중에서 41%인 736명은 조사 당시에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우측단절 사례로 분류된다. 나머지 약 60%는 과거에 농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였거나 혹은 은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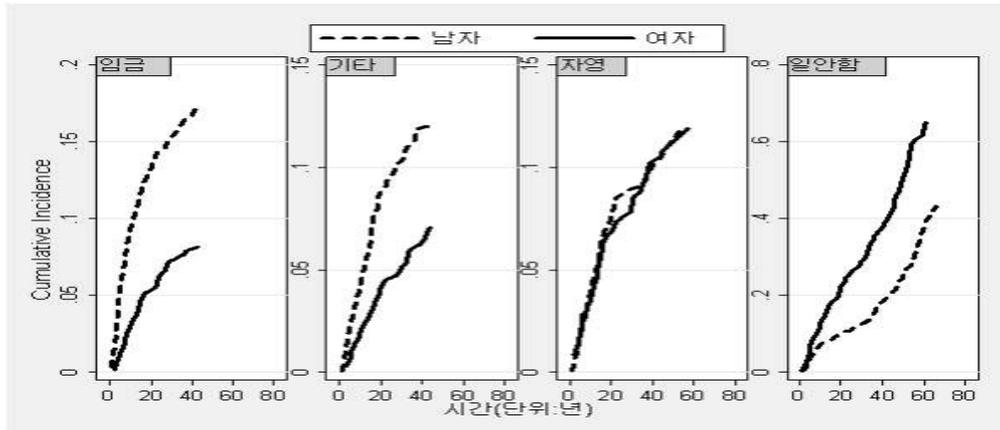
얼마간이라도 농업노동에 종사한 기간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인 496명은 농업노동에서 곧장 ‘일 안함’ 상태로 전환하였으나 나머지는 임금일자리(21.4%)나 기타 일자리(15.1%), 자영업 창업(16.1%) 등의 형태로 농업일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종사기간(spell)은 39.5년이다. 임금일자리로 옮기면서 농업일 자리를 이탈한 사람은 평균 12.7년의 농업노동기간 이후에 임금일자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현세대 고령자의 농업노동 이탈경로

	사례수	비율(%)	평균 지속기간(년)
농업지속(우측단절)	736	41.2(-)	-
농업 ⇒ 임금일자리	225	12.6(21.4)	12.7
농업 ⇒ 기타 여러 일	159	8.7(15.1)	15.6
농업 ⇒ 자영	169	9.5(16.1)	16.4
농업 ⇒ 일 안함	496	27.8(47.2)	24.7
전 체	1785	100(100)	39.5

농업일 자리를 이탈할 상대적 위험도의 누적확률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남성의 경우 임금일자리로 옮기면서 농업일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창업하면서 이탈하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지속기간(duration) 이후에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일 자리에서 임금일자리로 전환할 가능성은 모든 시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duration specific hazard rate). 기타 일자리로 전환할 가능성도 그 격차가 임금일자리보다는 적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 창업으로 농업일 자리를 이탈하는 위험도(hazard)는 남성과 여성이 각 기간 시점에서 유사한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로 전환하는 위험도는 각 시점에서 여성이 더 높았다.

[그림 2] 농업노동 이탈의 competing risks 누적확률 : 성별 차이



<표 6>은 매 시점에 특정한 유형으로 농업노동을 이탈할 상대적인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변수들의 영향을 회귀계수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일 안함’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농업일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농업에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창업하여 농업일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 그리고 여타 광역시에 비하여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농업종사기간의 각 시점에서 임금일자리로의 전환가능성이 낮고 은퇴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임금일자리 은퇴과정

임금일자리로부터의 은퇴과정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45세를 전후로 5년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한 일자리를 ‘생애 주된 임금일자리’로 보고, 이 일자리에서의 이직을 기점으로 은퇴과정을 정의하기로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자료」에는 45세를 전후하여 5년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한 사람이 2,469명이 발견된다(표 7). 이 중에서 29.5%에 해당하는 728명이 관찰시점까지 그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우측단절 사례에 해당한다. 생애 주된 임금일자리에서 은퇴하였거나 은퇴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중에서 42.3%에 해당하는 737명은 그 일자리에서 이직한 후 ‘일 안함’의 상태로 이동하였다. 33.3%는 다른 임금일자리

〈표 6〉 농업노동 이탈모형 : Cox Competing Risk Hazard Regression

	임금		기타		자영		일안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0.711	4.552	-1.184	4.186	-3.930	3.147
농업 시작연령	0.169***	0.029	0.150***	0.033	0.160***	0.033	0.097***	0.014
남성더미	-0.516	0.374	0.247	0.453	-0.348	0.386	-0.858***	0.166
결혼더미	0.939	0.701	1.164	0.966	0.347	0.550	0.275***	0.276
첫째 자녀 여부	-0.426	0.745	-0.854	0.995	0.817	0.665	-0.449	0.294
초졸에서 중졸	1.316**	0.488	0.140	0.442	-0.573	0.394	0.123	0.172
고졸 이상	1.914**	0.603	-1.265	1.110	0.526	0.566	-0.560	0.478
월평균 소득	-0.257	0.158	-0.255	0.210	-0.340*	0.184	-0.113	0.087
주당 평균근무시간	0.176*	0.009	0.024**	0.011	0.011	0.009	0.007	0.004
충청도	-1.294**	0.457	-0.340	0.635	-0.750	0.519	-0.296	0.228
전라도	-1.576**	0.522	0.252	0.566	-0.031	0.451	-0.420*	0.246
경상도	-1.515**	0.472	-2.222**	1.103	-0.740	0.543	-0.519**	0.263
광역시	-0.150	0.431	0.935	0.593	-0.266	0.584	0.159	0.248

주 :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기준범주는 성별은 여성, 학력은 초졸 미만임.
 Breslow method for ties
 Number of obs=3168
 Number of failures=324
 Time at risk=116120
 Log likelihood=-2056.2628
 LR chi2(55)=603.03
 Prob>chi2=0.0000

〈표 7〉 현대 고령자의 임금일자리 은퇴경로

	사례수	비율(%)	평균 지속기간(년)
임금지속(우측단절)	728	29.5(-)	-
임금 ⇒ 다른 임금	578	23.4(33.2)	13.6
임금 ⇒ 기타 여러 일	180	7.3(10.3)	14.9
임금 ⇒ 자영	246	10.0(14.1)	14.8
임금 ⇒ 일안함	737	29.9(42.3)	21.2
전체	2,469	100(100)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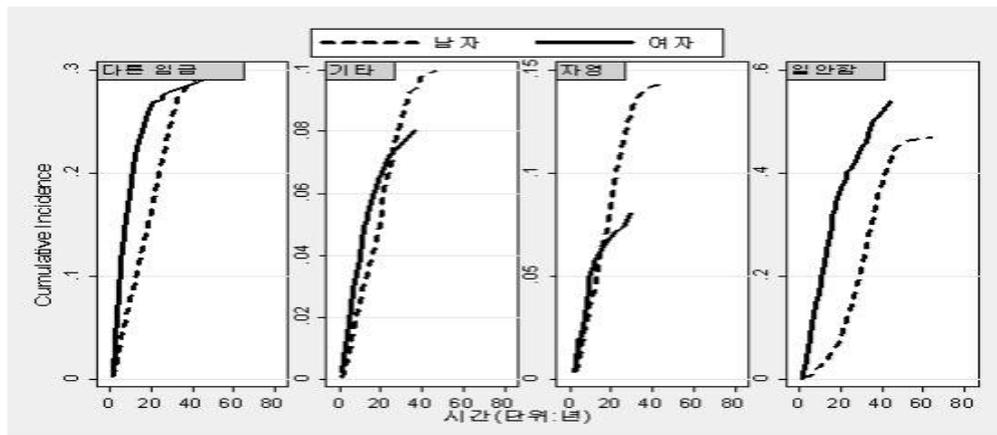
로 이동하였으며, 14.1%는 자영업자로 전환하였다. 나머지 10.3%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곧장 ‘일안함’의 상태로 이동한 경우, 임금일자리 평균 지속기간은 21.2년이었다. 다른 임금일자리로 이동한 경우가 13.6년으로 가장 짧았고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는 14.8년 정도로 비슷하였다.

생애 주된 임금일자리를 이탈할 상대적인 위험도의 누적확률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다른 임금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일 안함’의 상태로 전환하는 가능성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8>은 매 시점에 특정한 유형으로 생애 주된 임금일자리를 이탈할 상대적인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변수들의 영향을 회귀계수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그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모든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duration-specific hazard)은 높아진다. 남성은 여성보다 자영업 창업으로 생애 주된 임금일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 안함’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임금일자리로 전환할 가능성과 ‘일 안함’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학력수준은 기타 일자리로 전환할 가능성과 자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 이전의 총근로기간이 길수록 ‘기타 여러 일자리’로의 전환가능성은 높아지고 자영업 창업이나 ‘일 안함’으로의 전환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전의 일자리수는 다른 임금일자리로의 전환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된 임금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은 달라진다.

[그림 3] 임금일자리 은퇴의 competing risks 누적확률: 성별 차이



〈표 8〉 임금일자리 은퇴모형 : Cox Competing Risk Hazard Regression

	다른 임금		기 타		자 영		일 안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0.962	2.107	-1.362	1.966	-3.204**	1.392
임금 시작연령	0.209*	0.014	0.161*	0.024	0.231*	0.022	0.154*	0.011
남성더미	-0.065	0.143	0.269	0.261	1.102*	0.274	-0.558*	0.120
결혼더미	0.366	0.290	0.454	0.534	0.658	0.422	-0.142	0.192
첫째 자녀 여부 더미	0.286	0.298	-0.146	0.546	-0.179	0.438	-0.035	0.194
초졸에서 중졸	0.350***	0.193	0.227	0.299	0.372	0.410	0.359**	0.166
고졸 이상	0.452**	0.223	-0.548	0.379	0.597	0.436	0.377**	0.188
제조업·건설업·전기가 스수도사업	0.429*	0.112	0.180	0.199	0.350**	0.177	0.266**	0.09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133	0.207	0.184	0.375	0.801**	0.284	0.384**	0.161
관리자·전문가·사무직	0.092	0.133	-0.177	0.248	0.195	0.199	0.126	0.111
서비스·판매근로자	0.022	0.195	-0.145	0.373	-0.001	0.314	0.218	0.154
사업장 규모 300인 미만	0.115	0.141	0.226	0.253	0.409**	0.205	0.161	0.128
사업장 규모 500인 미만	-0.054	0.229	0.586***	0.326	0.136	0.336	0.097	0.192
사업장 규모 500인 이상	-0.145	0.137	-0.368	0.274	-0.341	0.230	0.066	0.104
월평균 임금소득	-0.626*	0.049	-0.586*	0.088	-0.624*	0.074	-0.294*	0.048
주당 평균 근무시간	0.014*	0.004	0.007	0.006	0.015**	0.005	0.009**	0.003
임금이전 총근로기간	0.012	0.010	0.030***	0.018	-0.038**	0.018	-0.018**	0.009
임금이전 일자리수	0.093**	0.033	0.035	0.064	0.026	0.064	0.027	0.037
충청도	0.359***	0.192	0.705**	0.327	0.737**	0.258	-0.038	0.191
전라도	-0.426**	0.216	0.583**	0.285	-0.268	0.304	-0.067	0.154
경상도	-0.143	0.163	0.258	0.266	-0.596**	0.295	0.145	0.127
광역시	-0.036	0.116	-0.201	0.234	-0.238	0.187	0.010	0.097

주 :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기준범주는 성별은 여성, 학력은 초졸 미만, 산업은 농림어업·광업·기타서비스, 직업은 생산·단순노무직·농림어업 숙련근로자, 사업장 규모는 100인 미만, 지역은 서울·경기도·강원도임.

Breslow method for ties

Number of obs=8252

Number of failures=1370

Time at risk=148708

Log likelihood=-9744.5614

LR chi2(91)=2515.17

Prob>chi2=0.0000

VI. 결론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2007년에 특별조사로 실시한 직업력조사는 현세대 고령자의

근로생애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과거 근로경험에 대한 정보는 향후 추적조사를 통하여 조사되는 다양한 노동시장 행위와 결과들에 대한 설명변수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현세대 고령자의 첫 일자리 경험은 평균 20.6세에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가졌던 일자리의 수는 평균 3.3개로 나타났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던 총근로기간은 평균 30.5년이었다.

이 글은 조사에 나타난 고령자의 근로생애 현상 중에 농업노동으로부터의 이탈과정과 생애 주된 임금일자리로부터의 은퇴과정에 주목하였다. 농업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들 중에서 41%인 736명은 조사 당시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얼마간이라도 농업노동에 종사한 기간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인 496명은 농업노동에서 곧장 ‘일 안함’ 상태로 전환하였으나 나머지는 임금일자리(21.4%)나 기타 일자리(15.1%), 자영업 창업(16.1%) 등의 형태로 농업일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일 안함’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농업일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농업에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창업하여 농업일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과정 분석을 위해서 45세를 전후로 5년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한 일자리를 ‘생애 주된 임금 일자리’로 보고, 이 일자리에서의 이직을 기점으로 은퇴과정을 정의하였다. 생애 주된 임금일자리에서 은퇴하였거나 은퇴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중에서 42.3%에 해당하는 737명은 그 일자리에서 이직한 후 ‘일 안함’의 상태로 이동하였다. 33.3%는 다른 임금일자리로 이동하였으며, 14.1%는 자영업자로 전환하였다. 나머지 10.3%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참고문헌>

- Coviello, V. & M. Boggess(2004), “Cumulative Incidence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Competing Risks”, *Stata Journal* 4(2), pp.103~112.
- Lunn, M. & D. McNeil(1995), “Applying Cox Regression to Competing Risks”, *Biometrics* (51)2, pp.524~532.